

고독

Einsamkeit

1. 개념 정의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고독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과학은 고독을 주로 정상에서 벗어난 행위로 보지만, 정신과학은 고독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창조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고독과 고립은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본질상 서로 다르다. 고독은 긍정적인 측면이, 고립은 부정적인 측면이 우세하다. 우선 개인 혹은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이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고독 속에서 이상적인 사회질서를 계획하거나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은 일반적으로 사회로부터 인간이 느끼는 소외를 전제로 한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사회를 떠나 조용히 명상하면서 존재의 비밀을 해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고독은 사회비판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사회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비자발적 고립은 일반적으로 사회구조가 인간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비자발적 고립의 모티프는 일반적으로 현대 문학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고대문학에도 나타난다. 고대비극의 주인공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낯선 힘에 의해 이끌려진다. 오이디푸스, 안티고네, 오레스테스, 파이드라의 고립은 피할 수 없는 끔찍한 운명처럼 보인다.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로 고립은 강요된 것으로, 그들은 고립을 이해할 수 없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잘못 혹은 자신의 내적인 확신과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의해 철저하게 고립된다. 그들의 고립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강요된 것이다.

19세기 문학에서는 이런 강요된 고립의 원인에 대한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고립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구조로부터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제 고립과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처럼 그려지며 진실한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야 하지만 쓸쓸하게 혼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물론 이 시대 고독을 다룬 작품에는 사회 비판적인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없다는 불만이 섞여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런 경향은 유럽뿐 아니라 미국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문학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원시림을 도시로 만든 이민자들과 영국 청교도들의



『벤치에 앉아 사색에 잠겨있는 고독한 남자』

정신을 토대로 생겨났다. 특히 『젊은 선인, 브라운』 등 호손의 단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거짓 투성이가 되어버린 사회에서 살아가고 죽어야하는 인간들의 고독을 그리고 있다. 그의 주인공들이 자주 혼탁한 방안에 혼자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끝없는 숲이나 광활한 초지, 한적한 길이나 쓸쓸한 거리에 주로 등장한다. 20세기에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이런 황량한 고독의

감정은 그 후 유럽 문학에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19세기 이후 두드러지게 된 비자발적 고립에 대해 두개의 서로 상반되는 문학적 경향이 생겨났다. 하나는 인간의 고립을 역사적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소외과정으로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립을 피할 수 없다. 그에 비해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문학에서 주로 일어난 경향으로 인간 소외의 원인은 사회적 ·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립은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편지소설과 대화소설, 목가, 풍자, 유토피아 형식 등은 자발적인 고독을, 드라마나 사회소설은 비자발적인 고립을 다루기에 적당하다.

2. 역사적 배경

테오크리토스,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세네카 등은 일찍이 고대부터 고독의 장점을 묘사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은 고독을 통해 자아와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은 혼란스런 일상적 삶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고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간은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서만 자아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세의 작품들도 자연 속에서 숨어사는 은자들의 고독을 찬양했다.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신의 피조물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인식하고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이다. 그러나 중세는 고독이라는 테마에 들어있는 정신적인 함의를 완전히 발전시키기에는 너무나 종교적 세계관에 얽매어 있었다. 이런 시도는 르네상스에 와서야 비로소 성공을 거둔다. 몽테뉴에 의하면 고독은 자아인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자아인식은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자연과의 조용한 대화에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런 고독에 대한 찬양의 이면에는 동시대에 대한 비판도 깔려 있다.

17세기의 시인들도 도시에서 벗어난 시골 생활을 찬양하면서 시대의 혼란에서 멀리 떨

어진 자연 속에서 즐기는 고독 속에서만 신을 발견할 수 있고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그들은 고독을 통해 야기되는 인간의 세속적인 감정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간은 고독을 통해 비로소 사랑, 고통, 삶, 죽음을 포함한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시인들에게서 고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대에 풍미했던 고독 찬양과 은둔 선호 현상을 반어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독 찬양현상이 수그러든 것은 아니다.

18세기 계몽주의시대 고독은 계속해서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독은 분주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자각과 자아인식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고독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은자』 혹은 『고독자』라는 이름을 지닌 잡지들도 생겨났으며 요한 게오르크 짐머만의 『고독에 대한 성찰』에서 고독으로 야기되는 심리적인 상태를 자세하게 논의하기도 했다. 물론 17세기 보다는 고독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어 고독을 염세주의나 죽음에 대한 성찰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특히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고독은 주변 세계와 이상하게도 멀고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는 현대 예술가의 속성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토마스 만은 얼음처럼 차갑게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아웃사이드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예술가를 그리고 있다.

20세기의 슈니츨러나 릴케와 같은 작가들은 세상과의 자발적인 단절을 행하는 주인공을 통해 고독을 형상화한다. 그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세상과의 절연을 통해서만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을 갈망한다. 그들은 시대나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조건과 자신 사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고독을 찾아 헤맨다. 도시의 모든 현상은 과편으로 인식되어 총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빌헬름 라아베, 안나 제거스, 볼프강 쇠펜, 하인리히 뵐, 페터 바이스와 같은 작가들이 그리는 고독은 사회 조건에 대한 저항으로 일종의 자아 확신의 과정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독은 제어할 수 없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가능한 발전의 시작이다.

3. 모티프 유형

독일 문학에서 고독을 다루는 경향에는 여섯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 1) 고독을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로 보고 찬양한다: 요한 게오르크 짐머만의 『고독에 대한 고찰』
- 2) 인간을 고립시키는데 일조한 사회조건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하우푸트 만의 『외로운 사람들』
- 3) 고독을 자초한 주인공의 개인적 잘못으로 서술한다: 빌헬름 라베의 『낯은 둥지』, 『새 노래의 기록』

- 4) 고독을 주인공이 비참한 현실로부터의 탈출하려는 시도로 여기고,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아르투어 슈니츨러의 『야외로 가는 길』
- 5) 고독을 방해하는 대도시 현실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킨다: 릴케의 『말테의 수기』
- 6) 고독을 예술가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 본다: 토마스만의 『토니오 크뢰거』

또 고독의 원인에 대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 1) 발자크에서 하우스푸트만을 거쳐 보르헤르트에 이어지는 경향으로 고독을 사회 발전의 한 과정으로 파악한다.
- 2) 스트린드베리에서 까뮈를 거쳐 베케트로 이어지는 경향으로 인간의 고독을 변화시킬 수 없는 실존 조건으로 파악한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배신, 실연
	실직, 파산
	가족, 친구의 죽음
	실존적 고독, 종교적 수양, 철학적 성찰
	사회의 구조적 원인(산업화, 대중화, 도시화, 자본주의 등)
과정	은둔생활, 집안에 혼자 틀어박혀 지냄
	기도원
	귀향 (귀농)
	비밀단체 가입
	사회비판, 사회개혁운동
	방랑, 여행,
	방탕한 생활 (섹스, 마약, 마리화나 등 탐닉)
	인간성 상실 (범죄, 살인)
	사랑
창작활동에 전념	
결과	자살, 병(우울증)
	수녀나 수도사로 변신
	작가, 화가, 철학자 등이 됨
	사회로부터 도피해 도인 생활

	반항아, 혁명가, 사회운동가
	감옥 행
	새로운 인식에 도달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릴케의 『말테의 수기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

장르	소설(일기체)
생성년도	1910년
등장인물	말테: 시골출신의 가난한 시인 에릭: 말테의 친구 아벨로네: 말테의 숙모 브라헤: 말테의 외할아버지 브리게: 말테의 친할아버지
주요모티프	고독
부차 모티프	죽음, 도시, 예술가

5.1. 내용요약

28세의 주인공 말테는 덴마크 시골출신으로 파리로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그러나 말테는 대도시 파리가 기대와는 달리 온통 가난과 죽음과 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산책을 하던 말테는 거리에 연무처럼 가득 차 있는 불안의 냄새를 감지하고 심각한 실존의 위기를 느낀다. 그는 시인으로서 새롭게 보는 것을 배우기로 작정한다.

우선 그는 도시의 많은 대형 공장에서 죽어나가는 공장식의 죽음에 대해서는 브리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여주었던 고유한 죽음을 연상한다. 또 너무나 새로운 환경 때문에 생긴 서술의 위기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낼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하셨던 브라헤 외할아버지를 연상한다. 이렇게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불안 극복을 시도하던 말테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도 치유되지 않은 깊은 상처가 파묻혀 있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뜻에 따라 군사학교를 다니면서 겪은 충격체험이었다.

말테는 왜 비참한 파리 현실이 어린 시절의 그 충격을 기억해내게 만들었는지 깨닫는

* 김용민(역): 말테의 수기, 책세상, 2000.

다. 어린 시절의 충격 체험이 파리에서 겪고 있는 충격체함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도 성찰의 끈을 놓지 않던 말테는 결국 그 실마리를 거리 곳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감내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내던져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발견한다. 말테는 그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 헌신하는 태도를 보고 자신도 어린 시절이나 파리의 비참한 현실에 등을 돌리지 않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런 인식하에 그는 자신이 읽은 책들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뒤적거리며 교황 요한 22세를 비롯하여 비참함에 헌신하여 마침내 그 비참함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역사적 인물들을 찾아낸다. 그 중 말테가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하는 사람들은 엘로이즈, 가스파라 스타파, 디에 백작부인, 클라라 뎡뒤즈, 루이제 라바, 마르셀린 데보드르 등 위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남자들이 자신들을 버렸지만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자신들을 버린 남자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들로 우뚝 섰기 때문이다.

보는 것을 배우는 인식실험을 하던 말테는 결국 마지막에 파리체함과 어린 시절의 충격체함을 극복한다. 그는 그것이 결코 묻고 피해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헌신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가 숫자가 아닌 행간으로 구분되어 총 71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마지막 장에 잃어버린 아들을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가출한 사람으로 해석한 것도 그 맥락이다. 그가 가출한 것은 너무나 사랑만 받아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성경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았던 이의 전설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고독을 방해하는 대도시 현실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키는 유형
- **서사구조**: 시골출신의 작가 말테가 대도시 파리에서 생활하면서 창작의 근원인 고독을 위협 받는다. 비참한 현실을 철저한 고독으로 극복했던 역사적 인물들을 회상하면서 불안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마침내 대도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면서, 비참한 현실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

원인	실존적 고독:
과정	불안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
결과	새로운 인식에 도달

6. 작품 목록

쥘머만 Johann Georg Zimmermann: 『고독에 대한 고찰 Betrachtungen über die Einsamkeit』 (1756)

하우푸트만 Gerhart Hauptmann: 『외로운 사람들 Einsame Menschen』 (1891)

라베 Wilhelm Raabe: 『낡은 둥지 Alte Neter』 (1897), 『새 노래의 기록 Die Akten des Vogelgesangs』 (1896)

릴케 R. M. Rilke: 『말테의 수기 Die Aufzeichnungen des Malte Laurids Brigge』 (1910)

슈니츨러 Arthur Schnitzler: 『야외로 가는 길 Der Weg ins Freie』 (1908)

만 Thomas Mann: 『토니오 크뢰거 Tonio Kröger』 (1913), 『마의 산 Der Zauberberg』 (1923), 『파우스트 박사 Doktor Faustus』 (1947)

7. 연계 모티프

대도시, 파라다이스, 자연, 소외, 죽음, 예술가, 섬, 허무, 방랑, 자살, 여행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실직 + 가출 + 고독 + 자살
스토리	실직한 아버지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낸다. 가족들이 점점 그를 멀리하고 무시하자 그는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가출한다. 그는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가족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절망한 그는 자살한다.